

- 세계 문화국가 중국의 관광개발실태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 -

공 무 국 외 여 행 보 고 서

2015년 1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http://assem.ongjin.go.kr>

공 무 국 외 여 행 개 요

- ☐ 여 행 국 : 중 국
- ☐ 여행목적 : 관광개발실태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
- ☐ 여행기간 : 2014. 12. 19 ~ 12. 23(5일간)
- ☐ 보고서작성자 : 의사팀장 최철영 외 2인
- ☐ 여행자 인적사항

○ 용진군의회

직 위	성 명	비 고
용진군의회 의장	김 형 도	
용진군의회 부의장	백 동 현	
용진군의회 의원	김 기 순	
용진군의회 의원	김 성 기	
용진군의회 의원	신 영 희	
용진군의회 의원	장 정 민	
용진군의회 의원	최 성 일	

○ 공무원

직 위	성 명	비 고
의사팀장	최 철 영	
전문위원	임 광 식	
직 원	김 명 제	

목 차

I. 서 론	4
1. 여행 목적 및 배경	
2. 여행 세부내용	
II. 본 론	6
1. 여행국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수행사항	
III. 결 론	24
1. 관광산업 발전방향 제언	

I 서 론

1. 여행 목적 및 배경

- 국제관광의 중요한 수요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방문하여 관광산업의 개발실태와 관리·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군의 지역적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을 발굴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 아울러, 연수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현지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지향적 안목과 국제 감각의 함양으로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여행 세부내용

가. 연수개요

- 기 간 : 2014. 12. 19 ~ 12. 23(4박 5일간)
- 방문국가 : 중국
- 연수인원 : 10명
 - 의 원 : 7명
 - 공무원 : 3명(의사팀장, 전문위원, 담당자)

나.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수일정	비 고
제1일 (12.19)	인 천~ 상 해	KE893	06:30 08:35 10: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인천공항 출발(2시간 소요) 상해공항 도착 시내이동 중식 동방명주(타워전망대/역사전시관) 시찰 상해 수산협회 방문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홍구공원) 방문 호텔투숙 및 석식후 휴식 식사 : 중/사천요리, 석/한정식 호텔 : 4성급 호텔	
제2일 (12.20)	상 해	전용차량	전 일	수산도매시장 탐방 - 동방국제 수산센터 상해 강남 명원인 예원 및 옛거리 견학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방문 동해대교-상해신항(양산항) 이동 시찰 식사 : 조/호텔식, 중/상해요리, 석/샤브샤브 호텔 : 4성급 호텔	
제3일 (12.21)	심 천	전용차량 MU5333	07:20 09:00 11:45	호텔 조식 후 홍교 공항 이동 상해출발(비행시간 2시간45분 소요) 심천공항 도착 시내이동 심천박물관, 심천시청 견학 심천민속마을 개발현장 방문 중화민족원 방문(소인국, 용봉무중화) 식사 : 조/호텔식, 중/한식, 석/해물요리 호텔 : 4성급 호텔	
제4일 (12.22)	심 천	전용차량	전 일	호텔조식후 염전항 시찰 소매사 해변양빈사업 비교시찰 심천 홍수림조류생태공원 관람 사구부두 비교시찰 로후상업성 지역 비교시찰 석식후 호텔투숙 및 휴식 식사 : 조/호텔식, 중/딤섬, 석/무제한삼겹살 호텔 : 4성급 호텔	
제5일 (12.23)	심 천 인 천	전용차량 KE828	09:30 12:40 17:0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출국소속 심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식사 : 조/호텔식 중/기내식	

Ⅱ 본 론

1. 여행국 일반현황

◇ 중 국

- 1)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
- 2)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 3) 수 도 : 베이징(北京)
- 4) 국 체 :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공산당 일당독재)
- 5) 정 체 : 인민공화제
- 6) 국가주석/국무총리 : 시진핑
- 7) 국 기 : 오성홍기
- 8) 인 구 : 약 13억 5,404만명
- 9) 언 어 : 중국어
- 10) 면 적 : 9,596,961km²(한반도의 44배, 세계 4위)
- 11) 통 화 : 위안(Y)

◇ 상해

- 1) 위 치 : 중국 양쯔강 하구
- 2) 면 적 : 6,341km²
- 3) 인 구 : 24,151,500명
- 4) 역 사 :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국내외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해 온 국제적인 상업도시로서 1945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재탄생한 이후부터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개방이후 90년대 중앙정부가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중심 도시가 되었다.

역사 속에서 중국의 어떤 도시보다 서양의 문물을 빨리 쉽게 받아들인 곳이기에 중국의 다른 도시와는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심천

- 1) 위 치 : 중국 관동성
- 2)면 적 : 1,953km²
- 3)인 구 : 10,547,400명
- 4)역 사 :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 중심도시이자, 가장 일찍 개혁과 개방이 실시된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심천의 역사가 깊어서 진,수나라 시대의 고묘, 당대의 해광사, 영도사, 남당의 환도사, 송대의 적만천후묘, 명청양대의 신안팔경 등의 적지않은 고대문물과 풍경 명성이 도시 곳곳에 자리해 있다. 그 외에도 심천을 관광도시로도 알리기 위해 건설한 관광지역 및 시설로 민속촌, 동물원, 수상낙원, 소인국, 서해안의 전원풍광 등이 있으며, 현재 개발되어 이용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46%로 그중 국가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과 경제식물지역에는 9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심천은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 5)기 후 : 아열대기후에 속해 있어서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강수량은 풍부하고 풍량도 적당하다. 연평균 기온은 22.4도 연평균 강우량은 1948.6mm다.

2. 주요업무 수행사항

○ 일 자 : 2014년 12월 19일(제1일차)

○ 방문지역 : 상해

1) 윤봉길의사 의거현장(홍구공원)

- 1932년 4월 29일 일본은 상해사변(上海事變)을 일으켜 상해를 점령한 뒤 전승기념 및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을 상해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거행하였다. 이때 비밀항일결사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 단원인 윤봉길이 사열대 위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요인을 폭살시켰다.

당시 사상자는 일본군사령관 대장 시라카와(白川義則), 해군중장 노무라(野村吉三郎), 육군중장 우에다(植田謙吉),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민단장 가와바타(河端貞次), 총영사 무라이(村井倉松) 등과 다수의 간부들이었다.

이중 시라카와는 중상을 입은 뒤 5월24일 사망하였고 가와바타는 즉사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독립운동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국인들을 열광시켰고, 그들에게 한국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시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하였다.

의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봉길은 자폭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일본군에 붙잡혀서 일본 대판(大阪)에 이송되어 12월 19일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방문한 날이 12월19일 윤봉길의사 추모식이 있어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며 마음이 더욱더 숙연해진다.



상해 매헌기념관



윤봉길의사 활약상 청취

2) 상해 수산협회

- 상해수산행업협회(SHANGHAI FISHERIES TRADE ASSOCIATION)는 원양어업, 해양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 해양약업, 수산물유통, 도매시장, 진출구기업, 수족관상어, 등의 목적으로 2001년 5월에 설립됐다.

협회는 수산업과 회원업체의 실제 수요에 따라 상해 양식산업의 전체 수준을 표준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원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문 협회와 계약자가 원하는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주최해주고 적극적으로 회원업체의 유명 브랜드 창출과 식품의 품질 및 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의 건설을 촉진한다.

동시에 정부의 전문교육, 산업통계 및 기타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 한국과의 교류는 정부와 정부의 만남은 없으며 무역관련 관계자와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부산 수협중앙회장등이 방문하였으며 내년 부산박람회에 방문하기로 하였으며 수산관련 교류를 통해 최근 1~2년 전복과 해삼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상해쪽은 근해가 아닌 원양어업으로 태평양인근 조업으로 연간 11~13만톤을 어획하고 있고 상해는 바다양식은 없고 민물양식으로 민물게(참게)등 10여가지를 양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수산업 발전을 기하고 있다.



상해 수상협회장 면담



상해수산협회장 기념촬영

3) 동방명주(역사전시관/타워 전망대)

- 1994년 준공 이래 상하이의 랜드마크로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총 높이 468m로 건설 당시 캐나다, 러시아,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란 기록을 세웠다. 높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의 엘리베이터. 동방명주탑 내부의 고속 엘리베이터는 탑승 후 40초 만에 전망대에 도착하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한다. 93m, 263m, 350m 지점에 각각 전망대가 꾸며져 있고 중간 전망대와 최고(最高) 전망대 사이에는 한 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회전 레스토랑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석양이 질때 황푸강가에 비친 빌딩숲이 붉게 물드는 광경은 시간을 잊고 바라볼 정도로 장관이다



동방명주탑 광장



탑에서 바라본 광장

○ 일 자 : 2014년 12월 20일(제2일차)

○ 방문지역 : 상해

1)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일제시대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광복을 위해 상하이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이 활동하던 본거지다.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 대표 29명이 상하이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졌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이 공포됐고 이어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출범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탄압으로 독립투사들은 항저우, 충칭 등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 상하이 내에서도 임시정부는 일본의 눈을 피해 여러 번 이전했는데, 현재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로 알고 있는 이곳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3층짜리 건물이다. 넓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빨간 벽돌집이 바로 임시정부 청사다.

1층으로 들어서면 조선족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약상과 청사 복원에 관한 내용을 다룬 10분 분량의 비디오를 시청한다. 그리고 나서 청사를 견학하는데 2층에는 이승만, 박은식, 이동녕 등이 사용했던 집무실이 있고, 3층에는 숙소와 전시관이 있다. 임시정부 청사로 쓰일 당시의 가구,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



2) 동해대교, 양산항

- 대륙과 30km 떨어진 소양산섬에 들어선 양산항의 경우 수심이 15m를 상회하여 8,000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족한 선석 수의 확대를, 상해항의 기존 23개 선석을 2011년까지 13개 선석이, 2020년 까지는 52개의 선석이 추가하게 되어 연간 1,5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대형 항만을 계획중이다. 또한 배후경제권인 푸둥지역 개발, 루차오항 물류단지, 루자주이 금융/무역 단지, 장장 하이테크단지, 와이

가오차오 자유무역지대 및 진차오 수출가공단지 등으로 인해 자체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를 양산항이 기존항의 약점을 파악하여 신항의 강점으로 활용한다. 신항만 지역을 포함하여 총면적 3,171만평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항만 및 배후 부지개발을 통하여 환적물동량 및 자체물동량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양산항 개발을 위해 동해대교32.5km를 건설하고 해양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전력수급으로 전력난을 해소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버금가는 장기계획수립으로 초대형 항만건설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양산항 전경



동해대교 풍력발전단지



양산항 개발과정



양산항 관계자 현장 설명

3) 상해(예원) 옛거리

- 중국 상해의 전통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광광지로써 찻집,극장등 오락, 문화 시설등을 하나로 모은 특색을 가진 거리이다. 청나라 시대 초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으며, 항시 많은 인파가 방문하며, 옛 모습을 잘 보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한곳이다. 또한 예전의 유적지를 그대로 잘 보존하여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광 상품화로 개발한 것을 보면서 우리지역도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상품을 옛 모습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원 문화유적지 탐방



예원 문화유적지 탐방

○ 일 자 : 2014년 12월 21일(제3일)

○ 방문지역 : 심천

1) 심천시청·박물관

- 중국개방개혁 30년을 기념으로 건설되어, 등소평의 개방개혁 30년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심천 박물관은 구관과 신관이 있는데, 최근에 개장된 신관은 지하철 2호선 시민중심역(市民中心)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좋고 시설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현대화 과정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며, 특히 2차대전때 일본이 진주만 폭격때 호외나 일본의 항복문서등 귀중한 자료가 많다.

심천시청의 외관은 웅장함과 비둘기를 형상화한 지붕구조로 건축물 그 자체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예술적인 미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심천박물관 시찰



박물관 내부



심천시청 시찰



심천시청 전경

2) 중화민족원(민속문화촌, 소인국)

- 민속문화촌 :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민간예술, 풍속, 민속 건축물 등을 한 곳에 모아 만들어 놓은 대형문화유람지로 심천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5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을 포함한 21개 민족을 선별하여 그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2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역에는 해당 민족의 전통건축물은 물론 세세한 생활용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원형 그대로 재현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고유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직접 실생활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을 맞는다. 무엇보다 매일 여러 소수민족들이 벌이는 공연은 그들의 문화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다.
- 소인국 : 화교성(華僑城)내 30만m²의 면적에 중국의 명승지들을 대략 1:15의 비율로 복제해서 지도의 위치에 맞게 배치해 두었다. 북경의 원명원 모형은 실재로는 없어진 옛날의 만국지원(萬國之園 만국의 정원)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심천시내에 위치한 이곳은 중국을 축소해 놓은 듯한 곳으로 중국의 명소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거대한 중국을 축소하여 놓은 곳이라 해서 소인국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중국 민속문화촌 시찰



소수민족 전통춤 용중무중화



소인국 만리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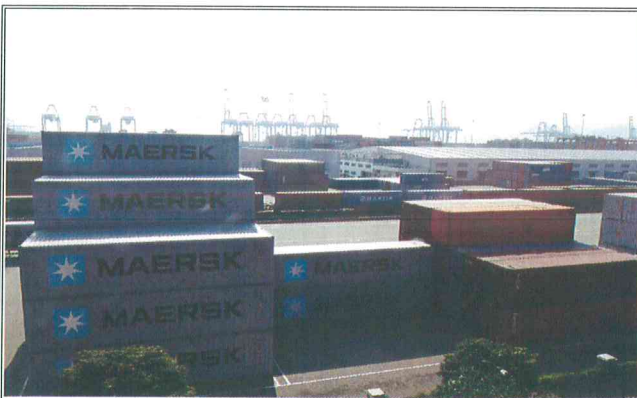
소인국

○ 일 자 : 2014년 12월 22일(제4일)

○ 방문지역 : 심천

1) 염전항 시찰

- 국제항만은 현재 중국의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WTO가입 후 중국의 대외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화물운수산업도 대폭 성장하여 그 중 90%의 화물은 수상운수이다. 현재 화물운송 부문에서 컨테이너 운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가장 높은 부문이기도 하다. 계속적으로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30%가량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는 상해항(上海港)과 염전항(鹽田港)이 있으며 대형선박 접안을 위하여 양산항을 건설 운영하여 세계적인 물류항만 시설로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염전항 시찰



염전항 전경

2) 홍수림조류생태공원

- 홍수림자연보호구역(紅樹林自然保護區)은 심천만의 푸티엔(福田)구에 있는 해변 공원으로 수심이 얕아 바다 멀리까지 개펄이 나있고, 바닷가를 따라 홍수림이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자연환경이 좋아 조류가 떼 지어 살고 있다.

홍수림은 해양목의 하나로 썰물에는 육지가 되고, 밀물에는 바다가 되는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줄기가 열은 붉은색을 띄어 홍수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국은 홍수림과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를 홍수림조류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공원으로 개방하고 있다. 20여종의 희귀한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해지는 노을녘 풍경과 수많은 새들이 함께 창공을 나는 광경이 유명하다.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공원조성은 우리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자연경관을 살리고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우리섬을 찾는 관광객들도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안 산책도로



공원내 휴식공간(소공원)

III 결 론

1. 중국관광 발전 전략과 우리군 관광산업

- 지금까지 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둘러싼 최근 중국 관광산업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풍부한 관광자원

- 우리 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보았을 경우 아직 미개발된 우리의 관광자원을 도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는 힐링을 테마설정으로 개발한다면 수도권 주변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의 인공적인 개발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연속에서 함께 숨쉬는 다양한 관광·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각종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파괴시에는 우리의 자원은 고갈되어 갈 것이다. 인공개발이 절실이 요구되는 부분은 개발하되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군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숙박시설

-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관련 정책의 수정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것과 같이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주요 숙박시설인 농어촌 민박시설의 현대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지원시 조정수(해송, 해당화)등 의무적으로 식재하도록 하여 웅진군의 특색을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종합적 관광 전략 수립

- 관광진흥을 위한 풍부한 관광자원 및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현대식 민박시설 지원, 접근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전략의 수립과 관광진흥 발전전략의 차질없는 달성은 주요 소득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중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